

소상공인 숨통 트이나...광주시, 1700억원 특례보증 지원

역대 최대 규모...금융기관 8곳 참여 광주신보·은행권과 특례보증 협약 최대 5천만원 용자...관광업계 우선

광주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특례보증 사업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자금달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경영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역대 최대액인 17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난해 1500억원보다 2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2022년 1000억원 대비 70%나 증가한 지원금액이다.

이 같은 대규모 특례보증 확대는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있는 민선 8기 광주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역 은행권의 협력 덕분에 가능했다. 실제 특례보증 참여 은행은 2022년 5곳에서 2025년 7곳으로 늘었으며, 출연금도 72억원에서 122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광주시는 특례보증 확대를 위해 지난달 23일 광주지역 경제주체 76개 기관·단체가 함께한 '2025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 행사에서 금융기관 8곳과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참여 금융기관은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등 8곳이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가 41억원, 은행권이 81억원 등 총 122억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에게 올 상반기 1000억원, 하반기 700억원 등 총 1700억원의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하루라도 빨리 금융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시기를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겨 1월로 조정했으며, 지난달 24일부터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관광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50억원을 관광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시는 고물가 상황을 반영해 최대 대출한도를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용자 지원 대상자는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

재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모든 업종이다.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용자받을 수 있다.

신용점수 350점 이상 소상공인은 이날 협약한 은행에서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1년 거치 6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단기코픽스+1.5~1.6% 또는 CD금리(91일)+1.5~1.6%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0.7%이다.

특례보증 희망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gjsinbo.or.kr)을 통해 상담 예약한 후 예약 날짜에 해당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앱인 '보증드림'을 통한 비대면 보증 신청도 가능하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58억여원을 투입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금리 이자를 3~4% 지원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특례보증으로 쫓겨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언제나 소기업·소상공인 곁에 있는 광주는 더 따뜻한 민생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부정선거 시비 없도록...

5일 오후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다음달 5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앞서 모의 개표 실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항공사들, 기내 '보조배터리 안전' 관리 강화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이후 국내 항공사들이 일제히 기내에서의 보조배터리 등 소형 전자기기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승객과 객실 승무원의 증언 등을 토대로 기내 선반 속 수하물에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것이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모든 국내 항공사는 보조배터리 및 소형전자기기를 선반에 넣지 않고 소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지만 최근 화재 이후 관

리 강도를 더 높이고 있다.

사교 당사자인 에어부산은 오는 7일부터 탑승 전 기내 수하물에 리튬이온 배터리 등 화재 위험 물체는 빼도록 하는 등의 '기내 화재 위험 최소화 대책'을 시행한다.

대한항공은 보조배터리 등을 작석 주머니에 보관하도록 승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조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투명화 지퍼백을 기내에 비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안전을 위해 보조배터리 등의 선반 보관을 방지할 추가 조치를 유관기관과

논의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일부터 보조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승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탑승을 마친 뒤 기내에서 하던 관련 안내 방송(1회)은 3회로 늘리고, 공항 카운터에서도 안내를 추가했다. 모든 항공기에는 배터리 화재 진압 전용 장비를 탑재할 예정이다.

제주항공, 진에어 등 다른 저비용항공사(LCC)들도 기내 선반 보관을 금하는 안내 방송을 추가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섰다.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여기에 더해 보조배터리를 지퍼백에 개별 포장해 보관하거나, 배터리 단자 및 USB 포트에 절연테이프를 붙여 합선을 방지하도록 안내했다. /연합뉴스

광주 상생카드 2월에도 10% 특별 할인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광주시는 "2월 한 달간 광주상생카드 10% 특별할인을 연장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광주상생카드 할인율은 7%다. 시는 지난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광주상생카드 10% 특별할인을 했다. 이번 달에는 광주시 단독으로 예산을 투입 시행한다.

이용자는 2월 한 달간 1인당 선불·체크카드 통합 50만원 내에서 10% 특별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즉시 구매나 충전이 가능하다.

체크카드에는 충전한 금액 중 2월에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다음 달에 10% 할인지원금(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2월 이전에 충전한 금액을 2월에 사용할 경우에도 할인받는다.

주최회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강기정 시장 "광주에 국가AI컴퓨팅센터 설립을"

AI 2단계 사업 여타 면제 필요

강기정(사진) 광주시장은 5일 "인공지능(AI) 산업은 시간 싸움으로, 스피드와 집적을 쟁겨야 대한민국에 기회가 온다"며 "국가 AI데이터센터 운영 경험이 있는 광주에 국가 AI컴퓨팅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AI는 초 단위로 진화한다. 챗GPT가 나온 지 2년 만에 등장한 딥시크만 봐도 그렇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AI 실증과 초거대 AI로 주도권 경쟁에 나설 준비를 마쳤으나 계엄 여파 때문에 멈춰 있다"며 "즉각 슈퍼 추경을 편성해 광주의 인공지능 전환(AI) 실증 사업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AI는 광주의 과제라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여는 프로젝트"라며 "국가 AI컴퓨팅센터 광주에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초거대 AI를 운용하려면 10만장 이상 GPU(그래픽 처리 장치)가 집적된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필요한데, 광주에 국내 유일의 국가AI데이터센터가 있고 생생형 AI를 위한 플랫폼인 엔디비아의 H100 국내 보유분의 절반이 광주에 있는 점도 피력했다. AI 영재고와 반도체 특성화 대학, AI대학원 설립 등 인재 양성 사다리를 구축할 예정인 점도 강점으로 꼽았다.

강 시장은 "AI 2단계 사업인 AX 실증밸리 조성은 전국의 AI 기업과 연구자들이 1단계에서 구축한 최신 GPU와 초대형 드라잉빙 시뮬레이터 등을 연구·개발에 활용하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부, 공무원 '딥시크·챗GPT' 사용유의 당부

행안부, 중앙부처·17개 시도에 공문 "보안 위험 우려"

중국산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광주시와 전남도 등 전국 공무원들에게 업무 현장에서 딥시크를 비롯한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4일 중앙부처와 광주시와 전남도 등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생성형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문에는) 챗GPT와 딥시크 등 생성형 AI를 업무 현장에서 사용할 때 유의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와 별도로 국가정보원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호주와 일본,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는 딥시크 사용 규제가 나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문중 임시총회 소집공고

1. 총 중 명 : 고성씨 진사공파 대곡문중
2. 총 회 장 소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터리 587-75 북암상당(비스타아파트)
3. 참석종원자격 : 위문중 후손으로만 19세 이상의 남자와 여자
4. 총 회 일 시 : 2025. 02. 15. 오전 12시
5. 소 집 안 건 : 전남 나주시 송계리 산 58-10 일야 35.618㎡에 관하여 매매대금 8억여원에 매도처분하는 건
6. 의결정족수 : 총중규약 제 9조에 의거 총회에 참석한 수를 정족수로 하고 출석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
7. 의사록 작성 및 기명날인 : 대표자, 임원 이기을, 이기남, 이남중 이상 4인 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2월 6일
소집통지인 문중대표자 이필호
연락처 010-6733-6161

73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先州日報

• 지역안내

북 구	• 동 266-1920	• 문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222-8171
	• 양 신 571-7658	• 오 266-7801
	• 동 433-1503	• 우 신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양 222-9054
	• 중 정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은 651-1833
	• 북 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3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 천 376-7153
	• 치 월 376-6511	• 통 양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온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신 944-0444	